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1, 2006. 2, pp. 373-393.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

현상학적 연구

김 혜 선
(삼척대학교)
김 은 하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미혼 양육모가 체험하고 있는 양육 결정 경험을 이해하고 그 체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개입 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꼴라쥐(Colazzi)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미혼양육모를 위한 '미혼모 중간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미혼 양육모 7명이었으며, 2003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평균 2차례에 걸쳐 "당신이 체험한 양육 결정 경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기술을 읽어서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 이를 좀더 일반적인 형태로 제 진술하고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분석한 결과, 22개의 주제와 '임신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짐', '홀로 겪는 현실이 모질게 느껴짐', '아이에게 정을 느낌', '아이 양육에 대해 갈등함', '아이 양육을 마음으로 정함', '스스로의 결정을 다짐함', '회생의 희망을 가짐'의 7개의 주제 묶음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양육 결정 체험의 의미가 '회생(回生) '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모 모자세대들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혼 양육모에 대한 개입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미혼 양육모, 양육 결정 경험, 현상학적 연구

1. 서 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낮은 출생률,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 및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인 가구, 한 부모 가족 등 비전통적 가족 형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미혼모가 자신의 호적에 아동을 입적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고(이재정, 2003), 입양을 의뢰했지만 출산과정과 산후의 상실감 때문에 아동을 다시 양육하는 사례가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다(이종수, 2004). 실제 전국 8개 미혼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은 그 비율이 낮아지는데 비해,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는 97년 6.9%, 98년 9.9%, 99년 9.3%, 2000년 9.6%, 2001년 상반기 1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일보, 2001. 9. 27).

하지만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연령층이 낮고 무직이거나 서비스직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유동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강영실, 2002). 또한 건강문제나 부모 역할 등 필요한 도움 및 정보를 얻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미혼 양육모 복지제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시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도 시설 보호 위주의 치료적이고 구호적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귀희, 2002; 김혜수, 2002). 즉, 우리나라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미혼여성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도 모자로 인정하여 상담,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고용촉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권 부여, 시설우선이용,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혼모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에(김재득·이행숙, 2002) 미혼양육모의 양육욕구를 인정하고 아동을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고 돕기보다는 미혼모라는 선입견으로 양육결정을 지지하지 못해왔었다(강영실, 2002). 비록 정부가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한 부모가족의 경우 6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로 5만원을 지원하고 미혼 양육모를 위한 그룹 홈을 9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파이낸셜뉴스, 2005. 12. 26), 이들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질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미혼모의 아동양육 선택은 여전히 힘든 선택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조선일보, 2001. 11. 30).

그러나 여성이 혼전 임신으로 미혼모가 된 후에 환경이 허락한다면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의 측면에서도 인공유산 혹은 입양보다는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미혼모의 발생과 아동 출산 후의 선택을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받아들여 보호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할 이유이며,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통해 서 잠재적인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뿐 아니라 소외계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미혼 양육모에 대한 연구들을 시도해 왔으며 최근 들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혼양육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입양기관, 혹은 미혼모 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김근조, 1984; 유유박, 1980), 다른 연구의 조사 자료를 재인용하거나(황옥자·윤미현, 1996; 강영실, 2000), 미혼모시설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하거나(김현진, 2002; 박성희, 2002),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거나(이재정, 2003), 질적 연구방법인 지오르지(Giorigi)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10대와 20대 초반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경험을 분석하거나(주숙남, 1999; 한진숙, 2001)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20대 미혼모의 임신경험과 미혼모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는(한영란·양순옥, 1997; 노승미, 2002; 이숙희, 2001) 등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연령, 학업, 가정환경, 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특성과 미혼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등 미혼모의 일반적인 특성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혼 양육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차원의 개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임신, 분만 후의 상황들에 대한 탐색에 불과하며 미혼모로서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아동 양육을 결정하고 아동 양육을 자신의 일상생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미혼 양육모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에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미혼모들이 아동입양을 선택하는 반면 동일한 과정에서 아동양육이라는 다소 모험적인 선택을 결정하는 그들의 경험과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혼 양육모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체험을 통해 양육 결정 경험과 그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혼 양육모들이 겪는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과 사회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질문은 “당신이 체험한 양육 결정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2. 문헌 고찰

1) 미혼 양육모의 정의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사회사업사전(Encyclopedia of the Social Work, 1995; 1997)에 의하면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모부자복지법(1989) 제 4조 1항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여성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며 미혼모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미혼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옥자와 윤미현(1996)은 미혼모를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고 임신함으로써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

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미혼모의 개념을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 이외의 아기를 가진 여성, 즉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해서 미혼모라 정의하고 있다(한인영, 1998).

이처럼 미혼모에 대한 국내의 정의는 여러 문헌을 통해 정의되고 있지만 미혼 양육모의 개념은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대체로 미혼 양육모란 혼전에 임신했다는 미혼모라는 개념과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두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혼 양육모는 모자인 한 부모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혼전 임신을 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두어 '미혼모'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되어 왔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미혼으로 임신했을 때 대부분이 아기의 양육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나 미혼양육모를 'Single Mother'로 칭하며, 10대 모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Young Single Mother' 또는 'Teenage Mother'로 분리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부모 안에서 분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Unmarried lone mother', 'Young unmarried lone mother' 등으로 불리고 있다(이재정, 2003).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미혼모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전국 공동 모금회 사업에 제출한 '미혼양육모를 위한 자조지지 공동체 사업'에서 '미혼 양육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정용순(2002)이 그의 연구에서 미혼양육모를 '미혼모들 중 아기 장래 결정에서 입양 등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로서 아동을 출산한 후 입양이나 시설입소를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임신중인 아동을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한 경우'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2) 미혼 양육모의 현황

1980년대 초에는 미혼모의 92.7%가 입양을 선택했으나(한국여성개발원, 1984), 1990년대 초부터는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려는 반응이 늘어나고 있다(애란원, 1999). 하지만 여전히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가운데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비율이 전체 미혼모들 가운데 10-25%에 머무는 현실이며, 미혼모 시설 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 가운데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노충래·김원희, 2004) 미혼 양육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는 14%,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는 86%(Donnelly and Voydanoff, 1991)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으로 미혼모들의 86%가 입양을 선택(서대문구청, 1995; 노충래·김원희, 2004에서 재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산되지만 미혼모 아동의 70%이상이 양육포기로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으며, 2004년 해외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99.9%, 요보호아동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42.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의 31.1%가 양육을 원하고 있고, 입양을 선택한 경우라도 경제적 지원이 있다면 37.7%가 아이 양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ttp//tong.nate.com/droprain22/10209967).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에는 최저생계비 130%미만의 한부모 가족의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 양육모 그룹홈을 9개소에서 16개소로 늘

리는 등(파이낸셜 뉴스, 2005. 12. 26) 국가 차원에서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미혼모들이 입양대신 아동양육을 결정하고 아동을 양육하도록 기여하는 데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혼모관련 정책들이 미혼모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고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하여 양부모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혼모를 위한 재정지원은 시설보조, 모자가정 보조가 전부였으며 분만 후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보조가 대부분이고 정부 보조도 현상유지의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는 자체 후원금으로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김재득·이행숙, 2002). 예를 들어 정부가 2006년에 모두 16개소로 늘릴 '미혼 양육모를 위한 중간의 집'의 경우에는 2005년 현재까지 정원이 1개소 당 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의 수를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고, 시설에서는 인건비(1인)를 포함하여 연간 55,879천원의 예산으로 전문상담과 서비스까지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또한 미혼양육모의 부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생아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한다할지라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미혼 양육모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된다는 것은 의료보장이나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결정한 미혼모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지원방안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미혼모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미혼모와 아이를 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남에게 입양하지 않아도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 아파트 보조금, 대학수업료 면제 및 학비 보조 등 교육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며, 국가 부담 유·무급 육아 휴직제도(15개월간은 월급의 90%) 등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김대성·성경륭, 1996).

3) 미혼 양육모의 욕구

미혼모들이 아이를 출산 한 후에 입양보다는 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직접 양육하는 보육형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홍신, 2001; 2002). 이처럼 아기 장래 결정과정에서 입양 등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미혼 양육모는 입양 등을 선택한 미혼모와 일정분의 특성과 욕구를 공유하면서도 한편으로 아기 양육이란 면에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 즉 미혼모의 경우, 아기장래 결정과정에서 친권포기 등의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미혼양육모의 경우에는 주위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을 넘어 아기 양육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고 양육이 삶의 주제로 부각되어 새로운 욕구가 등장하게 된다. 정용순(2002)이 전국의 7개의 미혼모 중간의 집에 거주하는 80명의 미혼 양육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혼 양육모들은 경제적 문제, 마음의 혼란, 가족과의 관계, 미혼부와의 관계, 아기문제, 사회적 편견, 건강문제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혼 양육모들은 경제적인 욕구가 매우 강했다. 미혼 양육모들은 일

반 여성들보다 임신 및 출산 연령층이 낮고 무직이나 서비스직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없거나 유동적인 직업이 많으며 가계 경제력에서도 대체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다(강영실, 2002). 이로 인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홍신, 2002; 정용순, 2002). 또한 미혼 양육모들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비 및 교육비의 부족, 이용 가능한 보육 시설의 부족, 야간 및 휴일 운영 보육 시설의 부족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사연경, 2002; 이종수, 2003).

둘째, 미혼 양육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아기에 대한 죄의식 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미혼 양육모들은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등 가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이종수, 2003). 그러나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상담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미혼 양육모들은 자녀의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양육 및 보호할 시간 부족, 지도 감독의 부족, 여가시간의 부족 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미혼 양육모는 자녀 양육문제에 있어서 아이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이로 인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며(김형진, 1999; 박영란, 2002), 탁아시간의 제한과 귀가 후 아기를 혼자 돌보아야 하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박숙희, 2001).

넷째, 미혼 양육모들은 주거문제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강영실, 2002). 미혼 양육모들이 이와 관련하여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지만 이러한 시설은 혼인 후 배우자 사망, 또는 배우자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자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소자 선정기준도 생활등급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입소과정도 시, 도, 군, 구의 여성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모자복지 위원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소를 결정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미혼 양육모가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 자립능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형성,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미혼모 중간의 집"[1]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현재 전국에 9개소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보호기간과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열악한 실정이다.

다섯째, 미혼모들은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주로 저소득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미혼 양육모들의 대부분은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고, 아기를 돌봐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정규직을 갖기보다는 일용직 혹은 파트타임의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다(박숙희, 2001; 사연경, 2002). 또한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줄 것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접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지 않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며(강영실, 2002), 직업연계교육 지

1) 2003년도에 5개소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당 미혼모 5명, 영아 5명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금액은 개소당 55,870천원(국고 50%, 지방비 50%)이며, 입소기준은 미혼모와 그의 2세미만 자녀로, 입소기간은 1년이며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원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필요한 훈련비, 교통비 등 제비용이 실비로 제공되지 않고 미혼양육모를 위한 시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분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다.

3.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혼모 중간의 집'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의 기술을 질적 연구방법인 꼴라쥐(Colazzi)의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미혼모 중간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혼 양육모 7명이다. 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7명으로 연구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1명, 고졸 4명, 전문대졸 2명이었다.

3) 연구자 준비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노인의 성공적인 노후, 남자 노인의 부부관계 체험연구 등의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한 바 있고 매월 질적 학회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과 국내외 학회, 세미나 등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에 연구자들은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주제에 대한 선입관을 먼저 토의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가정과 편견을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중지를 시작했다.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이 연구자가 가능한 적은 편견과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심층적인 문헌고찰은 억제했다.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고려

연구자는 면담과정 동안에 모스와 필드(Mose and Field, 1997)의 '동의과정'을 사용하였다(신경림 역, 1998). 이는 인간의 권리와 보호를 강조하며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 연구에 대한 동의과정,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전 연구 과정, 연구 참여자 의뢰 등 매 순간마다 옹호하는 역할을 함께 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첫 면담시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

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이를 녹음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라남도 S시에 있는 '미혼모 중간의 집'에 거주하는 미혼 양육모를 대상으로 "미혼모로서 체험하는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돌아와서 토의하고 녹취하였다. 자료의 포화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신경림 역, 1998)으로 하였으나 참여자에 따라 회수에서는 차이를 두었다. 평균 2차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이 걸렸으며 심층면담은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관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시작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면담 내용은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 녹음하였으며, 그 날 면담하여 녹음한 내용은 녹취록을 만든 후 디스켓에 저장, 인쇄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6) 자료의 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꼴라쥐의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Colazzi, 1978), 다음의 6단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대상자의 느낌을 얻기 위해 모든 대상자의 진술을 읽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에 대한 경험에 대해 최대한 동감하고자 면담내용을 듣고 문자화된 원 자료를 주의깊게 읽었다.

제 2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7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제 3단계는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들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연구자는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해 의미를 구성하였다.

제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묶음 또는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원 자료와 구성된 의미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하위범주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주제범주로 조직하였다.

제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최종적인 기술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주제 묶음을 통합하여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 체험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제 6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시키는 과정으로 대상자에게 되돌아가서 대상자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링컨과 쿠바(Lincoln and Guba, 1985)가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사실적인 가치(true

value), 응용성(applicability)에 근거하였다. 문장을 명확히 하려고 여러 번 읽음으로써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는 서술과 표현의 정교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상을 관찰할 때 판단중지를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명과 박사 수료 이상의 질적 연구자 2명에게 의뢰하여 결과의 지지를 높였다. 또한 응용성은 연구 상황 밖의 맥락에서 자료의 적절성에 의해 평가되는 질적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이외의 다른 미혼양육모와 주변 사람들, 미혼 양육모 시설의 직원에게 읽혀 그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된 결과를 서술하고 연구결과를 구 참여자에게 다시 읽힘으로써 자신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미혼 양육모가 체험한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원 자료를 연구자 2인이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 75개를 추출하였고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일반적 언어로 재 진술한 구성된 의미들을 가지고 〈표 1〉과 같이 22개의 하위범주를 조직하였으며, '임신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짐', '홀로 겪는 현실이 모질게 느껴짐', '아이에게 정이 생김', '아이 양육에 대해 갈등함', '아이 양육을 마음먹음', '스스로의 결정을 다짐함', '회생의 희망을 가짐'의 7개 주제 묶음이 확인되었다.

주제 묶음 1. 임신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짐

참여자들은 준비도 없이 뜻하지 않게 다가온 임신 소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흐트러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이였거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아이 아빠는 아이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자들과 점점 관계를 멀리하면서 모든 책임과 결정을 참여자들에게 떠넘겼고, 가족은 혼외임신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함께 아이를 낙태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평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점점 위축되는 것을 느끼면서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아이를 낙태시켜야 하는지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졌다.

> 위탁에 모든 걸 맡겨가지고, 키우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시설 알아봐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싫다고 갑자기 이제 돌변한 거죠. 자기가 친구들 만나고 어디서 놀다 보니까 아이가 부담이 되더라고...(중략) 그 막 힘들 때, 남자친구가 모진 말 할 때,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또 왜 넌 내 인생에 끼어들었냐?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가 당장 지우라고, 5개월 때 말했거든요. 엄마는 당장 지우라고 엄마는 안 받아 준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안 된다고 아이 데리고 올 거면 오지 말고 안 받아 준다고 (참여자 5). 먼저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떼라고 그러고... 살지는 않고, 그러더니 이제는 도저히 안돼겠는가 싶어서.... 또 그러다 헤어졌어요. 그 뒤로 연락 안하고, 아주 날 죽일 년 살일 년, 욕이랑 욕은 다하고 집에 와서.... 애 떼야 된다면서, 근데 아홉달 된 애기를 누가 떼어줘요. 당연히 안 떼어주죠. 그래가지고 아주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참여자 6). 일도 못 다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은 애기 아빠

하나. 애기 아빠 한명, 애기 아빠 친구 한명 딱 두 명 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몰랐고요. 내 임신한 줄을 ... 그니까 답답하죠.. 우울증 걸렸어요. 또 슬퍼지고.. 애기를 우선 애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배에 뱃속에 애기가 있을 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참여자 1). 처음에는 조금 자신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딱 낳아놓고 나서 그냥 내가 엄마하고 가족하고도 안보면서도 애를 키워야 되나 그런 생각. 갈등을 하면서 키워야 될까 아니면 다 던져버리고 갈까도 싶었는데 도저히 계속 그렇게 생각해도, 생각해도 그게 안돼는 거예요. 안되는 거(참여자 2). 작년에,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힘든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서 처음에는 지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딱 갔는데, 아이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잠깐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올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참여자 7).

〈표 1〉 미혼 양육모가 체험한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주제 묶음

주제 묶음	하위범주
임신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짐	1) 임신으로 인해 멀어진 아이아빠
	2) 가족의 거부
	3) 위축된 자신의 모습
	4) 분만에 대한 양가감정
홀로 겪는 현실이 모질게 느껴짐	1) 홀로 아이를 분만
	2) 비참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처지
	3) 책임을 회피하는 아이 아빠
	4) 등 돌리는 내 가족
아이에게 정이 생김	1) 내 처지를 닮은 아이
	2)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아이
	3) 아이와 살 궁리를 함
아이 양육에 대해 갈등함	1) 부정적인 주변의 시각
	2)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음
	3) 아이 아빠에게 기대고 싶음
	4) 양육에 대한 갈등
아이 양육을 마음먹음	1) 내 아이임을 인정하기로 함
	2) 등 돌린 가족과 화해를 시도함
	3) 단절된 관계에 대한 회복을 원함
스스로의 결정을 다짐함	1) 막연한 기대를 버림
	2) 아이로 인해 변화된 자신을 느낌
회생의 희망을 가짐	1) 현실을 받아들임
	2) 새롭게 살아가려는 나를 발견함

주제 묶음 2. 홀로 겪는 현실이 모질게 느껴짐

참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함께 하고 아이의 탄생을 기뻐해주는 이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다. 텅 빈 옆자리만큼 휑하니 비어버린 가슴 한 구석에 진한 슬픔을 느끼며 주위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과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못되는 현실에 비참함을 경험했다. 아이 아빠는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아이의 존재를 회피하고 아기 아빠의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도 여전히 그들을 거부하며 함께 대처하기를 꺼려하지만 가족과 아이 아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참여자들은 축복받지 못한 모진 현실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다.

저는 수술해서 낳았는데, 혼자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왔어요. 수술할 때... 옆에 한명도 없다는 게 진짜 서럽데요. 너무 서럽데요. 울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죠. 너무 비참해지니까, 너무 비참하고, 남자친구도 수술 날짜를 알았거든요. 그 전에 말해서 알았는데 수술 날짜 잡혔을 때 3일? 그 날로부터 3일 동안 연락 두절이었어요. 선생님이 해도 안 되고, 연락이 아예 안 됐다가, 나중에 됐어요.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옆에 필요할 때는 없었어요. 수술하고 막 깨어났을 때는 옆에 의자도 있었는데, 없었어요(참여자 5). 진짜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애기할 때도 아무데도 없었고, 말할 곳도 없고, 거의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몇 번 실려 갈 정도였고,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갑자기 나오려고, 배가 막 아파거든요. 근데 애가 나와 있는 상태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배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 왔거든요. 애가 뭐. 애 낳을 때가 아닌데, 이 애 낳았거든요.(참여자 6).

내가 굳이 이렇게 너무 아이 낳고 그 순간, 순간 내가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 따가운 시선 받아 가며 완전히 불쌍한 사람 취급 받아가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굳이 살 필요가 있나, 그 때는 진짜 말도 못하게 너무 비참해요. 그 상황이 그래서 남들은 다 막 와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몸조리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 먹는 것도 있죠, 나오는 음식 먹는 것도 다 안 먹었어요. 안 넘어 가요(참여자 5). 몸조리가 안돼, 당연히. 그리고 친정엄마가 뭐 해주는 것도, 애기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애기 울면 내가 애기 울 때, 애기 빨래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데.... 좀 서럽긴 서럽죠(참여자 1). 오빠는 안도와주고... 내가 물론 도와주란 말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알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런데 그런 것도 도와준 적도 없고(참여자 2). 그냥 인제 뭐 낳으라는, 그런 식으로 애기했어요. 애기 낳으라고, 그런 식으로 애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 대책 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나 봐요. 대책 없이 그냥 애기만 낳으라고 그렇게 애기 했었어요. 애기 잘 크냐고 언제 한번 온다고 그런 식으로 애기했는데 그렇게 애기하고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참여자 4). 인연 끊었어요, 엄마하고...낳고 나서 이야기 했죠. 엄마가 해결했냐?고, 애기 지웠냐?고. 해서 해결했다고. 어떻게 했냐?고. 애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인연 끊자고. 그래도 나도 자식을 못 버리고 엄마도 나를 못 버릴 거라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어떻게 할꺼니까 참고 키우라고. 생각해 보니 그러더라구요(참여자 1). 처음에 완전 모진 말 하더니 나중에는 불쌍하다고 막 우시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못 받아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참여자 5). 이번 추석 때는 인제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오지 말라고. 대게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게 마음 아파요. 엄마한테 00이 보여주고 싶은데(참여자 2).

주제 묶음 3. 아이에게 정이 생김

참여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전전긍긍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아이만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다. 또한 어찌할 수 없이 버림받은 현재 처지의 자신 모습과 아이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여자들은 아이에게 연민의 정이 갖게 되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과 아이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나 직업관련 정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 물리면서 너무 아파도 계속 그래도 먹여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초유를 못 먹여서 미안해서, 그러고 또 혹시나 그럴까봐 약할까봐 안 그래도 축복도 못 받고 태어났는데, 약할까봐 막 먹였는데. 이리저리 많이 막 내가 막 갈등할 때이니까 아이만 보고 있었어요. 전화만 보고, 그냥 그랬어요. 우리 잘 살자. 앞으로 잘 해보자. 그 생각, 우리 이렇게 세상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한번 잘 해보자. 엄마랑 엄마가 너의 친구가 되 주고 엄마가 되어줄게. 중요한건 이 세상 한번 이겨 살아야지 아마 그랬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어도 그냥 느낌에, 내가 상처 입은 게 우리 아이들 상처다, 그 생각이 들고(참여자 5). 전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오로지 집에서 해주는 거대로 의료보험카드 들고 병원 가고 1종, 2종, 모자세대, 국민기초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도 헷갈려요 뭐가 뭔지(참여자 1). 여기 있을 때 최대한 배우고 싶고 하루는 미용하고 싶고 하는데, 1년에 그걸 배우기에는 1년이 너무 짧은 것 같애. 컴퓨터 6개월 과정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허비, 허송 너무 많이 지나(참여자 2). 나도 이제 그 간호..그 그게 하고나도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이제 다음 년도까지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랑 뭐 합친다든지 확실히 생각한건 아닌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연세도 있고 하니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돈을 벌고, 오셔가지고 애기 좀 봐주라고 할까 지금 생각중이에요. 컴퓨터 같은 것도 배우고 뭐 제빵 같은 것도 요즘엔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자격증 같은 것 따면...저는 그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컴퓨터 이제 그...기사 있잖아요 왜 그 수리해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 부품 뭐 갈고 막 그런 거, 배우고 싶거든요(참여자 4).

주제 묶음 4. 아이 양육에 대해 갈등함

참여자들은 미혼모라는 자신의 처지를 늘 의식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보이는 좋지 않은 시선과 태도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또한 또래의 친구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갈등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였고, 아이 아빠라도 있었으면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서 아이 아빠에게 기대고 싶은 생각을 가졌다.

> 조금 있으면 호주제도 폐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아직은 엄마나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미혼모니까 생활이 어렵네 막 그런 소리 하는 거, 듣는 게 싫지. 그리고 돈 안내고 나오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좀 있긴 있어요(참여자1). 병원을 갔는데 의료보험카드가 병원을 갔는데 엄마 본인이 보호자에요 그렇게 했을 때... 대게 쪽 팔리잖아요. 다른 사람들하

고 보험카드도 틀리고, 틀리고 그 보험카드 내놓는데 대게 쪽 팔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빠랑 와 가지고 병원 와 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엄마가 보호자고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아,아 정말 쳐다봤어요. 그때는, 정말로 쳐다봤어요. 진짜 그 큰데 병원이, 병원이 크니까 '엄마는 엄마가 보호자예요 00님'.이러니까 '예', '엄마 분 성함이 000씨 맞죠? 000어머니'. '예.예' 그때 대답만 하고 있을때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창피하게, 쪽팔리고 진짜 막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정도. 그때 아직까지도 세상에 아빠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나 막 그런 느낌이 들었고(참여자 2). 총각이 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식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인정을 하는데, 처녀가 애가 있다고 그러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게 좀 그렇게 시선을 좀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참여자 4). 저한테, 아이를 혼자 키우냐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이랑 단둘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고 아이를 보내지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세상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나는 이제 반듯하게 살아도 저 여자 혼자 사네, 그걸 아는 순간 시선을 다르게 본다고요. 경험해 보면 알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참여자 5). 애 아빠 어디 갔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영세민인지 아닌지 뒤에 구분을 해 논다 그러더라구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지금...그니까 돈 없고 빽 없고 어엉, 남편 없고 엉, 그러니까 갈데없고, 이렇게 무시당하구나 하고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많이 울고(참여자 6). 그냥 부모가요, 결혼도 안하고 애를 혼자 키우는데, 동네 사람 시선이 안 좋게 생각할거 같아서, 내가 가더라도 애기 아빠는 다른데 외국에 돈 벌러 가고, 우리 부모가 반대했는데 내가 고집이 세서 기른다고, 남편이 있다고 그래 한다고(참여자 7). 단지 만약에 오빠랑 같이 그냥 살았으면 그냥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속상해요. 진짜 여기, 여기 시설에 있고 저기 밑에 솔직히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것 보고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참여자 6).

주제 묶음 5. 아이 양육을 마음먹음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이가 사생아임이 밝혀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관행을 깨고 자신이 선택한 아이를 호적에 올림으로서 본인의 아이임을 당당히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인 순간, 참여자들은 제일 먼저 주위 사람들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아이를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인정해주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등 돌렸던 가족에게 화해를 시도하며 서서히 다가가려고 노력하였다.

애기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됐든 살아남는 길은 내가 움직여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진짜 보통 마음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참여자3). 출생신고 하고 제 호적에. 호적에 제가 호주가 됐죠. 호주로 되고 그 밑에 제 00이가 오고, 딸랑 둘이예요. 그것도 둘이서 그리고 또 등본 띠면 둘만 나오고. 막상 둘이 있는 것 보면, 참 썰렁하고 되게, 그래요 일단은 우리 00이 드디어 출생신고 안하면 세상에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출생신고를 해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출생신고 딱 돼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자식 딱딱, 자, 자로 딱 되가지고 딱 박혀서 나오는데,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기분이 좋고 그냥 그것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사람들 오면 친구들이나 누가 놀러 오면 이것 보라고, 이것 봐보라고, 00이 드디어 내 밑으로 올라 왔다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

니고, 또 좋아서...그러고 다니고...그날도 00이 안고 이렇게 좋아하고(참여자 2). 처음에는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등본이라도 떼어 보고, 어제 딱 됐다니까 그 때서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아니 제 성을 붙여서 아이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항상 아이 이름만 불었거든요. 이름만 부르고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불러 본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뭐한 건 아니었는데, 슬펐어요. 아 이게 내 아이... 아 이제 엄마 성으로 했어도 그래도 쳐다보면서 계속 이름만 불렀어요. 성 붙여서... 출생신고해서 이제 딱 보면서,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같이 가자. 어차피 너랑 나랑 둘이 가야하니까. 두렵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내 아이를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낳아서 같이 살아가야 될 아이인데, 내가 선택한 아이인데, 내가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참여자 5). 호적 이제 제 앞으로 다 해 올려놓고 그 전에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 안 했었거든요.(중략) 그 어차피 이제 같이 살아갈 건데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이인데, 나마저 이 아이를 숨긴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왕 이렇게 낳아가지고 결심까지 하고 내가 미혼모로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는 그만큼 자기 마음도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모르는 애들한테는 연락 자주하고 만날 애들한테는 남자 친구들이어도 얘기를 하려고 딱 마음을, 말 해야지 그 생각(참여자 1).엄마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엄마가 이곳에 오셨어요. 엄마랑 길게 얘기는 못하고 엄마가 명절 때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참여자 6).

주제 묶음 6. 스스로의 결정을 다짐함

참여자들은 아이 아빠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접어 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이 아빠의 태도로 인해 참여자들은 이제 남성에 기대어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개척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경험하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였다.

믿을 것도 없지만, 그 남자한테는 아예 그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현, 현재는 그렇지만 00이와 둘만 살 생각이고, 일단은 00이 아빠한테서 만나서 어떻게 잘해 볼 생각은 난 추워도 없구요(참여자 2). 애 낳고 나서 마음에 안정을 찾고 그랬지. 그냥 그랬어. 오빠 딱 정리하고 이곳에 내려, 내려오고, 인제 마음을 잡고 애한테 충실하고 그랬어요(참여자 6). 이제 남자가 별로라는 생각이, 같이 살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마음은 많이 비웠어요. 거의 마음은 많이 비웠어요. 생각을 처음에는 꼭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아야지 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이제부터 그 남자라는 사람한테 기댈 필요를 못 느껴요. 안 기대면 되겠다는 생각이, 아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는, 나한테로 오겠지. 그런 생각 같은 건 안해요(참여자 5). 애기를 키우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인제, 참을성도 많이 길러지는 거 같고, 애기 키우면서, 애기만 아니면 이제 제가, 애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도 그, 뭐 직업을 구하지 않더라도, 인제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기가 있는 상황이니깐, 어쩔 수없는 직업도 가져야 되고, 저는 좀 굶더라고 애기를 먹여야 되니깐(참여자 4). 좀 활동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미혼모 시설에 있을 땐 많이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기가 많이 팍팍 죽어 있었어요. 일단은 겉모습에서 자체에서부터. 이런 거 스타일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겉모습자체도 바꾸고 싶고 마음가짐 다짐이 그런 것도(참여자 1).

주제 묶음 7. 회생의 희망을 가짐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미혼 양육모라는 것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시각,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려움 등의 부담스러운 현실과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미혼모가 되어 암담했던 순간과 외롭기만 했던 출산, 그리고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이 아빠와 가족들의 태도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과 앞으로 견뎌나가야 할 막막한 미래를 받아들이며 아이와 더불어 앞으로 삶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없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같이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아이랑 저랑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참여자 6). 생각 있게 살자, 그냥 생각 있게 살자, 내가 내 아이한테 나중에 아이한테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다 보고 자랄 텐데,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것, 나로 인해 욕을 먹는 것, 그래서 00이 때문에 좀 많이 배우고 싶고 이제는 공부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리고 00이한테 막 책으로 보다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못 배우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것 물어보면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 있으니까(참여자 2). 지금 현재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1년을 키우면 나가야 되잖아요. 채우고, 살아가야 할 일이 더 망막해요. 지금 현재는 내 모습이 이렇다 해서 남들한테 꽤재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할 것 같아요. 애기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됐든 살아남는 길은 내가 움직여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참여자 3). 간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 따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 전망도 있고, 자격증을 땄는데, 친구가 병원에 있거든요. 간호사로 근데 자기 병원에 취업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딴 데도 알아봐서 안 되면 말하라고 그러더라구요. 00가 있으니까 힘들면 못하는데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5시정도에 끝나는데 그러면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을 따라고 저도 일단 간호사자격증을 딸 생각이에요(참여자 5).

5. 논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꼴라쥐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미혼 양육모가 체험하는 양육 결정 경험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혼모 중간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양육모 7명이었으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개의 하위 범주와 7개의 주제 묶음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양육 결정 체험의 의미가 '회생(回生)' 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의 참여자들은 역설적이게도 10대의 미혼모들처럼 결혼이나 임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확고한 신념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갖고 불연 듯 찾아온 임신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결혼 전 임신이라는 전통적인 결혼 절차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성년이 된 후에도 성교육과 성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대 이상의 미혼모의 수가 10대 미혼모의 수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2)]

성에 대한 교육 및 상담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이 아빠가 임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가족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거부를 당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위축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한진숙(2001)의 연구결과에서 '임신을 확인하자 오빠가 자기 아이 아니라고 등을 돌려 미워짐'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오빠의 임신 책임 회피로 더욱더 원망하고 증오하게 됨', '자포자기하게 되어 삶을 포기하려 함'과 정용순(2002)의 연구결과에서 '두렵고 무서웠다', '수치심', '절망감', '혼란스럽다'. '걱정스럽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중 41.3%가 '집을 나가라'고 한 경우였고 '무관심과 냉대'가 대다수였다는 김홍신(2002)의 연구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 양육모들은 대부분의 미혼모들처럼 임신이나 부모가 될 준비 없이 임신을 하기 때문에 불안, 혼란, 좌절, 우울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상태는 태아의 유산내지 사산율을 높이고(최양자·김귀분, 2004) 산모의 부적절한 산전관리로 인해 미숙아,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한다(한상순, 2002; 이복순·전영주, 2005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기관과 관련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100여개가 넘는 상담소가 있지만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상담소는 여성회관이나 시청의 구내 건물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그 명칭조차 없어지고 가정복지과의 상담계가 담당한다거나 상담실조차 없는 경우도 많으며 담당자가 하는 일도 상담보다는 보조비 지원이나 행정 또는 행사위주의 일에 시간을 대부분 소요하며, 간이 상담소의 경우는 직원이 간이로 설치된 상담소에 파견을 나가서 그 때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고정자, 2002). 또한 미혼모 시설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비의 대부분이 시설유지 용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어서 전문 상담가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미혼부들은 출산과정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었고 어느 가족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참여자들은 아이 양육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가감정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혼부는 불안하고 적대적인 부모와의 관계에 직면하게 되면 부모로서 역할이 불가능해지는 경향이 있고(Cutrona, Hessling, Bacon, and Russell, 1998; Coley and Chaselansdale, 1999), 부모와의 관계에서 갖는 친밀성과 협조의 정도가 미혼부의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효율성과 일관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Gavin, Black, Minor, Abel, Papas, and Bentleyl, 2002), 미혼부에 대한 부모역할 개입이 미혼모와의 동거생활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Johnson, 2001) 확장된 가족들 간의 역동성과 가족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Kaplan, 1997).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의 문제를 해당 여성에 국한하여 개입하고 있고 미혼부의 개입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비록 2005년에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모부자복지법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여성가족부가 2005년 미혼모시설 11곳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 대상으로 '미혼모 현화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21-25세가 전체의 45.8%,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고, 2004년 해외입양아 가운데 미혼모의 아동이 99.9%인 점을 감안할 때 미혼모의 출산 후 아이에 대한 계획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의반 타의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으로 입양을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1년 후, 2년 후에 입양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모보다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Donnelly and Voydanoff, 1996), 다른 사람의 설득 혹은 회유로 인해서 입양을 선택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mone, 1996). 따라서 미혼모가 자신의 선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입양과 양육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동 양육을 결정하면서 독특한 체험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미혼모가 되어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즉, '미혼부와 헤어짐', '가족과의 단절', '부정적인 자기 자각'(주숙남, 1999; 이숙희, 2000; 노승미, 2002) 처럼 여느 미혼모와 비슷한 상황과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했고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아이를 떠나보내는 상실감을 택하기보다는 내 핏줄이라는 개념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모성애(노승미, 2002)', '연민의 정(한진숙, 2001)', '애착(한영란 · 양순옥, 1997; 주숙남, 1999)' 등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아이의 처지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 궁리를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충래와 김원희(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혼 양육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정보와 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참여자들이 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는 행위에서 절정에 이른다.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을 감출 길이 없음을 두려워하여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이금주, 1994), 이들은 본인의 호적에 아이를 올림으로써 부정적인 사회인식에 정면으로 부딪쳐나가면서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는 아이 양육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아이 양육을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고 또는 가족과 같은 제 삼자의 역할을 해 줄 수 존재를 찾고(배미영, 2000)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하는 등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즉, 위축되었던 삶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당당히 살아보려는 회생(回生)의 삶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자립을 선택한 미혼 양육모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아동 부양 부담 때문에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저임금직에 고용되기 쉬우며 또한 취업이 되더라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Heath and Orthner, 1999; 고정자, 2002에서 재인용), 이를 감안하여 아이 양육을 결정한 미혼 양육모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정책마련이 요구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 양육모가 체험하는 양육 결정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당신이 체험한 양육결정 경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미혼모 중간의 집'에 거주하는 미혼 양육모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참여자들의 기술을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꼴라쥐의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꼴라쥐의 현상학적 분석은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개의 하위범주와 '임신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짐', '홀로 겪는 현실이 모질게 느껴짐', '아이에게 정이 생김', '아이 양육에 대해 갈등함', '아이 양육을 마음먹음', '스스로의 결정을 다짐함', '회생의 희망을 가짐'의 7개 주제 묶음이 확인되었고 미혼모의 양육 결정 체험의 의미가 '회생(回生)'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로 양적 연구와 같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미혼 양육모에 대한 개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과 정부의 시설 보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2006년에 7개의 양육 그룹 홈이 개소되어 모두 16개의 보호시설이 확충되나 미혼 양육모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혼 양육모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미혼부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미혼 양육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 그룹 홈과 정부 보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혼 양육모와 그 아동의 생계보조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미혼모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일정한 직업과 자산이 있는 경우 미혼모와 그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동 양육비인 5만원으로 그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지속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어렵게 시작한 독립적 생활에서 또 다시 의존할 대상을 찾거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혼모의 양육결정을 사회적 차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 관련 보호시설과 가족들이 미혼모가 출산한 영아에 대해 입양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미혼모 스스로 영아의 장래와 한 여성으로서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와 상담 등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관계 회복 및 강화를 위한 개입 및 지지망 구축을 위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관습에 위배된 혼전 임신으로 인해 임신, 출산 그리고 아동 양육에 따른 책임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단절에 따르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미혼 양육모가 스스로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개입 서비스와 올바른 부모역할을

배우며 고민하고 체득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친구 등의 사적 지원망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실. 2002. “미혼 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제 7회 서울시 여성복지 세미나』. 서울시 여성복지 연합회.

고정자. 2002.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동아교육논총 』 28: 201-215.

김근조. 1985.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성·성경륭. 1996. 『여성복지론 』. 서울: 나남.

김재득·이행숙. 2002.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한미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부』 6(1): 71-100.

김혜수. 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진. 2002. “미혼모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방안”.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진. 1999. “편부모가족의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신. 2001. “미혼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http//www.honshin.net.

. 2002. “미혼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http//www.honshin.net.

노승미. 2002.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충래·김원희. 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7: 49-79.

박영란. 2002. “한국 미혼양육모 복지의 발전방향”. 『제 7회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자료집』. 서울시 여성복지 연합회.

박성희, 2002. “미혼모 실태, 의식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숙희. 2001.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미영. 2000. “미혼모 발생요인 분석”.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연경. 2002. “한국미혼모 아동양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림 역. 1998. 인터뷰. S. Kvale. 1998. Interview. 서울: 하나 의학사.

애란원. 1999. 『애란원 소식』. 봄호.

유유박. 1980.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이금주. 1994.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복숙·전영주. 2005. “미혼모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논집』 16: 1-32.

이숙희. 2001.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정. 2003. “양육미혼모의 욕구에 대한 질적 분석과 사회복지실천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수. 2003. “미혼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귀희. 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정용순. 2002. “미혼 양육모에 대한 사회적응 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숙남. 1999. “미혼모의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양자·김귀분. 2004. “미혼모의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31-341.
통계청. 2000. 『인구주택 총조사』.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영란・양순옥. 1997.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학회지』 11: 194-208.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 방향”.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대책 춘계학술대회. 1-17. 한국모자보건학회.
한진숙. 2001. “10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 체험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옥자・윤미현. 1996. “한국미혼모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논집: 인문사회과학편』 35: 219-24.
국민일보. 2001. “10대 미혼모 늘고 직접 양육도 늘어”. 9월 27일.
조선일보. 2001. “10대 미혼모 육아비 위해 성매매”. 11월 30일.
파이낸셜뉴스. 2005. “새해 달라지는 것; 노동·교육·복지·여성”. 12월 26일.
Cola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the phenomenologist view it existential phenome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ley, R. L., and P. L. Chase-Lansdale. 1999. "Stability and change in parternal involvement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416-435.
Currona, C. E., R. M. Hessling, P. L. Bacon, and D. W. Russell. 1998. "Pridictors and correlates of continuing invovement with the baby’s father among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369-387.
Donnelly, B, and P. Voydanoff. 1991. "Factors associated with releasing for adoption among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40: 404-410.
Gavin, L., M. Black, S. Minor, Y. Abel, M. Papas, and M. Bentley. 2002. "Young disadvantaged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infants: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 266-276.
Johnson, W. E. Jr. 2001. "Paternal involvement among unwed fathe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s* 23: 513-536.
Kaplan, E. B. 1997. *Not our king of girl: unraveling the myths of black teenage motherho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incoln, Y., and E. Guba. 1985.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 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 65-172.
Simone, M. D. 1996. "Birth mother loss: Contrbuting factors to unresolved grief."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4(1): 65-76.
http//tong.nate.com/droprain22/10209967.

The Experience in Deciding for Childcare of Unmarried Lone Mother : Phenomenological Research

Kim, Hye-Seon
(Samcheok National University)
Kim, Eun-H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in deciding for childcare of unmarried lone mother and searching for intervention methods through in-depth examination of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To achieve this, the Colazzi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was applied. The subjects of study were 7 unmarried lone mothers in early age of the twenties and thirties, who resided in an institution for unmarried lone mothers.

An in-depth interview was held individually with them with question of "What is the experience in deciding for childcare as a unmarried lone mother" twice on the average from Nov. 2003 to Feb. 2005. The results found that a unmarried lone mothers' experience in childcare meant 'resurrection' through analyzing 22 themes and 7 theme clusters(confusion due to pregnancy, harsh feeling for reality suffering alone, feeling of love for a baby, mental conflict about childcare, decision toward childcare, firm in decision, hope for resurrection). Al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limitation of generalization due to phenomenological study, it will contribute to accepting and understanding mother-and-child families as one type of family rather than regarding them as being difficult or alienated in family and society, to recognizing the need of taking back their rights, and to suggesting intervention methods for unmarried lone mothers.

Key words: unmarried lone mother, the experience in deciding for childcare, phenomenological research.

[논문접수일 2005. 9. 9. 게재확정일 2006. 1. 24.]